

## 경제

# “이대로라면 광주공장 문 닫아야”

## ‘직장폐쇄’ 금호타이어 김종호 대표 단독 인터뷰

직장폐쇄 이틀째인 26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은 김종호 대표이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공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베트남 공장은 둘릴 수록 이익인데, 광주공장은 극도로 생산성이 떨어져 전체 회사의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서 얻은 이익으로 광주공장 급여를 줬다는 얘기도 했다. 본사는 정면 충돌하고 있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조위원장의 인터뷰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제쯤 협상이 타결될 것 같은가.  
▲어렵네. 가능하면 노조 선거 전 타결되게 하겠다. 세계 경제가 호전될 조짐을 보이는 등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인데도 못하고 있다.

-제 2의 쌍용차 사태도 우려되는데.

▲쌍용차와는 다르다. 쌍용차의 경우 자동차



-임금 수준을 경쟁 회사와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 내리거나 깎을 생각은 전혀 없다. 임금이 높아도 생산성이 높다면 상관 없는 일이다.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회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외에 방법이 없는가.

▲인원을 줄여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문을 닫는 대신 줄여 연명하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노조 수정안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보전 방안을 요구했는데.

▲논의 안했으면 좋겠다. 일하고 급료를 받아야 일도 안하고 받는 것은 그 당시엔 좋은 것을 지불로도 도움이 안된다. GM의 물류 과정이 결국 그것 때문 아니냐. 지금까지는 배변 들어왔다.

지난 2007년, 2008년 중국 공장의 이익을 가져다 메워줬고 그전에는 경쟁력이 있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절벽 끝에 와있다. 떨어져 죽느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느냐 기회에 서 있다. 임금 보전을 하는 것은 단연컨대 회사를 파별로 몰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제대로 해놔야 나중에도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내부이다.

-교섭이 있는 날 직장폐쇄를 해 ‘뒤통수를 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뒤통수를 맞은 건 우리다. 생각해봐라. 60일 넘게 생산량 감산·부분 파업·전면 과업·휴가 등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다. 지금까지의 교섭 기간 동안 편지도 수차례 썼고 협상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에 대한 소통이 안된 것이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경쟁력 없는 회사 망한다고 누가 돋겠는가

### 뒤통수 쳤다고? 노조가 그동안 한걸 봐라”

공장은 경쟁력이 있다.

-노조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회사는?

▲이미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정안을 내놓았다. 회사안 6개항은 선택이 아닌 회사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있다.

업·전면 과업·휴가 등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다. 지금까지의 교

섭 기간 동안 편지도 수차례 썼고 협상했다. 그

런데 회사의 사정에 대한 소통이 안된 것이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금호타이어·기아차 노사갈등 장기화

# 회생기미 지역경기 ‘찬물’

금호타이어와 기아차의 임금협상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우려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6일에도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교섭을 중단

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날 제시한 임금동결 및 2008년 성과금 요구 철회, 2009년 성과금 보류 등 수정안에 대한 사족의 결단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기준 제시안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사측은 또 이미 통보한 해고대상자

명단에 대한 재합의 요청 및 2차 회망퇴직자 신청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리하고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선거 기간 정의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 조업에 복귀하기로 해 사측도 직장 폐쇄 조치를 풀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조도 다음달 차기 집행부 선출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섭을 중단

키로 했다. 노조는 그러나 27일 생산 물량을 파악하고 근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부터 그동안 거부했던 임업·특근을 비롯, 정상 조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조합원 4천여명은 이날 오후 4시께 광주공장에 모여 ‘금호타이어 정리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 경제에 인사들은 “노조 집행부 선거 결과에 따라 노사갈등이 장기화돼 태업이나 파업 같은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주저앉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 코스피 연증 최고

26일 서울 명동 의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의환 관련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74포인트(0.80%) 오른 1,614.12로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한때 1,615.05까지 치솟으며 이를 전 기록한 연고점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 금남지하상가 우선 분양자 40곳 그쳐

# 점포임대 무더기 공개 입찰할 듯

금남지하상가 1공구 내 상당수 점포가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직영점포가 아닌 입점점포의 경우 분양자와 세입자 간 합의 후 26일까지 임차인 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 속에 합의를 보지 못한 점포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제1순위자에 해당되는 직영점포 약 30곳을 제외한 제2순위자의 임차인 신청을 한 곳은 10여 곳에 그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자들이 임차 기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광주시는 이날 임차 신청을 마감한 뒤 31일까지 임차인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점포는 다음 달 중에 감정평가액을 하한선으로 삼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도 입대점포 분양자와 세입자 대표 간 만남을 주선했으나 각 점포별로 임차형태가 크게 다른데다

104)는 전달보다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했으며 현재 가계부채CSI(104→102) 및 가계부채전망CSI(100→98)는 각각 2포인트 하락하는 등 가계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14.12 (+12.74)
코스닥지수
516.96 (+6.27)
금리 (국고채 3년)
4.36% (+0.02)
원·달러 환율
1,245.30원 (-2.9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지역 소비심리 6년만에 최고

### 8월 117… 전달보다 5P 상승

시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2003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경기상황 판단과 전망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334가구를 대상으로 한 ‘2009년 8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는 117(기준치 100)로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에 96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며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이 크게 개선되면서 지난 2003년 조

시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현 재생활영편CSI(101), 생활편전망CSI(112), 가계수입전망CSI(104), 소비지출전망CSI(110), 현재경기판단CSI(114), 향후경기전망CSI(124) 등 6개 소비자동향지수(CSI)가 모두 기준치(100)를 넘어섰다.

특히 현제경기판단CSI(99→114)와 향후경기전망CSI(113→124) 모두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2003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가계자축CSI(98→101)와 6개 월후의 향후가계자축전망CSI(102→

##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 수완코리아랜드 공인증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 수완지구

## 수완 롯데마트 옆

###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타운 빌딩

####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급” 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대인동삼일부동산

☎ (02)33-1140, 5210 번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점포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층수/층 고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층수/층 고정가 최저가 비고
금호타이어 대52, 건64 1억6천 8층994m 단층빌딩	금호타이어 대117, 건36 9억5천 4층 모델
금호타이어 대152, 건767 23억 8층23m 6층건물	금호타이어 대141, 건375 9억5천 4층 모델
금호타이어 대92, 건243 9억7천 4층42m 4층건물	금호타이어 대100, 건2734 17억5천 9억5천 2층공장
금호타이어 대330, 건800 27억 124m 10층10층, 단층	금호타이어 대149, 건1057 11억6천 39억5천
금호타이어 대855, 건1303 56억5천 18억5천 7층10층, 지상1층	금호타이어 대102, 건2518 11억6천 30억5천
금호타이어 대81, 건988 10억8천 4층8천 2층 8층 건물	금호타이어 대104, 건2548 19억8천 13억5천
금호타이어 대167, 건886 28억5천 12억7천 12층7층	금호타이어 대105, 건401 19억8천 13억5천
금호타이어 대190, 건1820 6억5천 24억 7층7층	금호타이어 대126, 건1968 32억4천 18억5천
금호타이어 대790, 건1161 57억 30억 5층4층	금호타이어 대126, 건103 27억5천 9억5천
금호타이어 대25, 건370 100억 44억 6층 6층건물	금호타이어 대14, 건253 14억5천 5억5천
금호타이어 대216, 건351 22억8천 6억5천 6층6층	금호타이어 대38, 건253 7억4천 2억5천
금호타이어 대415, 건383 28억2천 15억8천 6층6층, 토지교부	금호타이어 대49, 건502 10억8천 8억5천
금호타이어 대124, 건284 11억3천 7억2천 4층 4층	금호타이어 대50, 건502 9억5천 5억5천
금호타이어 대100, 건321 6억1천 2억2천 7층7층	금호타이어 대51, 건502 10억5천 10억5천
금호타이어 대549, 건176 6억8천 3억8천 6층8층	금호타이어 대617, 건